



<책 읽어주는 남자 Der Vorleser>, 1995

작가 : 베른하르트 슐링크 Bernhard Schlink

<더 리더 The Reader>, 2008

감독 : 스티븐 달드리 Stephen Daldry

❖ 작품에 대한 두 가지 평

- 긍정적 평가 : 홀로코스트를 성공적으로 묘사한 문학 작품으로서 나치의 강제수용소라는 민감한 소재를 취급했고,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관점 그리고 전후 세대의 관점에서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 접근했다.
- 부정적 평가 : 여주인공 한나의 개인적인 불행에 초점을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수용소 대량 학살의 끔찍한 범죄를 상대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.

<책 읽어주는 남자 Der Vorleser>, 1995

※ 제2차 세계대전(1939-1945)

- 홀로코스트 Holocaust
: 유래 - 그리스어 hólos(전체) + kaustós(타다)
- 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
- 전범재판

- 강제수용소 Konzentrationslager

* 집단 학살 수용소 Vernichtungslager

: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집단으로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스실을 구비한 수용소

* 포라이모스 Porajmos

✓ 롬어 Porajmos = das Verschlingen
(집어삼키다/먹다)

: ‘멸종’, ‘파괴’

✓ Rom/Roma

: 보통 ‘집시’라 불리는 북부 인도에서 기원한 유랑민족

- 전범 재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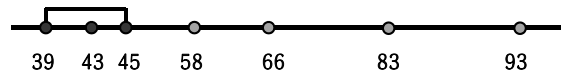
* 뉘른베르크 재판 Nürnberger Prozesse

: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 독일의 전범들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들에 대하여 열린 연합국 측의 국제 군사 재판

- 1차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 (1945년 10월 - 1946년 10월)
: 1급 전범 23명 기소
- 2차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(1946년 12월 - 1949년 3월)
: 유대인 학살에 대한 재판

<책 읽어주는 남자 Der Vorleser>, 1995

※ 작품의 시대적 · 시간적 배경



- 1939-45 제2차 세계대전
- 1943 한나: 아우슈비츠 경비대원으로 일함
- 1958 한나(36세)와 미하엘(15세)의 첫 만남
- 1966 법정: 한나(43세)와 미하엘(23세)의 재회
- 1983 자살: 18년 간의 수감생활을 마감하는 한나(61세)
- 1993 미하엘(50세)의 회상

<책 읽어주는 남자 Der Vorleser>, 1995

※ 생각거리 (조별토론)

1. 미하엘과 한나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면,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?

- 1-1. “나는 이해와 유죄판결 [...]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었다” 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자.

2. 한나와 같이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들의 태도는 어떠한가? 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핑계는?

<책 읽어주는 남자 Der Vorleser>, 1995

※ 생각거리 (조별토론)

3. 한나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나치 경비대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. 이러한 사실이 그녀의 죄를 도덕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가?

- 3-1. 그리고 한나의 자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?

4. 이 소설은 가해자인 주인공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끔 서술함으로써 끔찍한 범죄를 상대화했다는 비판이 있다.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

* 독일의 과거청산

- 처음 - 자발적 X
- 1949년 - 서독 정부 출범 : 국민 통합에 역점
- 1956년 - 소련의 독일군 포로 귀환 / 나치 범죄조사 구체화
- 1961년 -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재판
- 1998년 - 마르틴 발저 : “나치를 과거로 인식할 때”
- 2000년 - '기억, 책임 그리고 미래' 재단 설립